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18주일

제35권 36호(나해) 2015년 8월2일

[묵상]



생명의 빵

유대인들은 오로지 물질적인 배부름에만 관심 있었지,
참 생명 자체이신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일반 음식은 배부르게 먹어도 마지막에는 죽고 말지만,
예수의 생명과 마음을 받고,
그 생명과 마음으로 살아가면,
죽어도 아주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음식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씨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바치신 그분의 애정과 사랑과 삶과 피가
참된 음식이다.

인간들을 진정으로 살리고 일치시키고 부활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음식은
오직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 사랑뿐이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에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3: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특전 미사	(연)민찬기 요한, 이용식 베드로
	(생)김지수 헤레나 & 시무궁 루이스, 유금중 프란치스코, 김민중 안드레아, 이민욱 레지나,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이현호 요한, 이용식 베드로, 김상진 토마스, 고준희 제임스, 이용수 요셉, 박수경 스테파노, 이태숙 카타리나, 장명화, John Green, 현시영 요셉, 전시웅 요한, 이종수 마틴 소창영& 소준주,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생) 윤선희 로사 & 정광미 프란체스카, 민원희 안나, 박이레나, 박완철 다니엘& 박희자 마리아, 정동호 하상 바오로 & 정병옥 올리아, 김택수 프란치스코& 김명숙 루실라, 박지상 아우구스틴 & 엘리아나 & 조이, 오창근 베드로 신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탈출기(Exodus) 16,2-4.12-15

화답송 ○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우리가 이미 들어 아는 것을,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전하리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권능을, 다가올 세대에게 들려주려 하노라.○

○그분은 높은 구름에 명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어, 만나를 비처럼 내려 그들에게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네.○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네. 주님이 양식을 넉넉히 보내셨네. 당신의 오른팔이 마련하신 이 산으로, 당신의 거룩한 영토로 그들을 데려오셨네.○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4,17.20-24

복음 ○ 알렐루야.

환호송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복음 요한(John)6,24-35

영성체송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가톨릭이란?

1.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던 제자들인 사도들로부터 이어오는 법통을 오늘날까지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서기 30년경,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기 그리스도교는 사도들의 열성적인 선교 활동으로 시리아, 그리스, 로마 등지로 신속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천주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300여 년 가까이 혹독한 박해를 받았지만,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 마침내 313년 신앙의 자유를 얻었고, 곧이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천주교는 지난 이천 년 동안 서구 문화와 문명의 정신적, 사상적 토대가 되어 왔으며, 학문과 예술에도 지대한 공헌을 해 왔습니다. 또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실천하면서 세계 평화와 인류에 증진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세계에는 약 10억 명(1998년 말 통계)의 천주교 신자들이 같은 믿음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묵상]

제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가 됩니다.

기도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 마더 테레사-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377	208	208
봉헌	255	269	266
성체	291	305	304
파견	기뻐하며 왕께	218	215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번 주일 복음은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빵 담화문의 한 부분입니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6장은 오천 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이야기, 그리고 다음에 길게 이어지는 ‘생명의 빵’ 담화문의 앞부분인 오늘 복음이 위치하고, 그 뒤에 ‘생명의 빵’ 담화문 본문과 제자들의 모습으로 6장이 마무리됩니다. 이 문맥에서 ‘오천 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이야기’와 ‘생명의 빵’ 담화문 사이에 난데없이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이야기’가 위치한 까닭은,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하느님 현현’의 이미지와 먼저 연결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나다(I am!),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는 대목은 구약의 오랜 전통에서는 야훼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나는 어떠 어떠한(혹은 ‘누구누구의’) 하느님이다”라고 하실 때 많이 등장하는 ‘하느님현현 정식’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곧 하느님이심’을 드러내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주시는 내 아버지’가 곧 ‘나를 보내신 분’이시고,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 곧 하느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곧 생명의 빵’이라고 연결되어짐을 봅니다.

그런 맥락 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군중들이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당신을 따라온 점을 지적하시며,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

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나’, (그것도 결국 사라질) 하늘의 ‘선물’을 찾을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빵’이신 ‘당신’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복’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느님’을 추구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사실 교회 역사상 뛰어난 영성가들과 성인들은 공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그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니)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추구하라.” 하느님을 추구한다는 것,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받아 모심으로써 그리스도로 양육되어, 하느님에게 기초한 참 생명문화를 이 세상 안에 심고, 가꾸고, 건설해 나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음을 포함합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셨던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의 삶과 그 가치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독서 에페소서는 말합니다. “옛 인간을 벗어 버리고,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휩쓸리기 쉬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가치, 하느님의 가치를 따라서 살라고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도 성체로 우리를 먹여주시며, 하느님의 생명을 이 땅에 가꾸라고 우리를 파견하십니다.

◆ 정순택주교 / 서울대교구보좌주교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손석 스테파노	정광미 프란체스카	해설자	곽수진 보나	신덕례 데레사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정진욱 노엘	박진수 스테파노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정명모 마리아	제2독서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김금자 데레사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1반	제물봉헌자			토동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 오늘 주일(2일, 매달 첫째 주일)은 성전 기금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성모승천 대축일미사 : 15일 (토요일)

- 아침미사 : 오전 8시30분

◆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제4회(2015~2016학년도)
장학증서와 장학금 수여식 :오늘 주일 낮 11시 미사 중

- 리셉션 & 뱅케트 모임 : 오늘 주일(2일) 오후 5시
- 장학생들과 부모님들을 초대 합니다.
- 선발된 수혜학생 9명 : -가나다 순
김명선(Jenobepa), 김승미(Veronica), 김지수(Helena)
박 안젤라(Angela), 성기완(Priscus)), 신희령(Alicia),
이병도(Alexander), 이어진(Michael), 한혜림(Katherine)

◆오늘 주일 11시 미사 중에 최치원 안드레아 신부님
의 신앙특강이 성체성사를 주제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은혜로운 시간되십시오.

◆성모회에서 김치 병을 모으고 있습니다.
큰 병, 작은 병 이 있으시면 부엌 옆 작은방에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대상 : 초,중,고등부
- 자격 : 영어 가능한 남녀교우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주일학교장 ☎(310)709-3343

◆주일학교 복사단 모집

제대에서 복사 봉사를 할 수 있는 성실한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 대상 : 주일학교에 등록된 첫 영성체를 한 학생
- 월례회의: 8일(토) 오후3시, 새로 복사단 입단을 원하시는
학생과 부모님께서서는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주일학교장 ☎(310)709-3343

◆주일학교 교사 연수

- 대상 : 주일학교에 봉사하는 모든 교사
- 일시 : 8월 9일 주일 오전11시부터 5시30분까지

◆ 주보 광고에 협찬해주신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매주 발행되는 백삼위 주보에 광고후원금을 보내오고 계시는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세 신자 환영합니다.”

부르심은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속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원예로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 ✠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8월은 한달 간 친교 점심 나누기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김성현	김철민	민경근	박영희	박진수
	신경훈	양영관	유보나	육근주	이경태	이종선
	이현주	이형삼	이호세	임한나	장영진	정혜영
	조소영	조준제	최태훈	황인종	한길선례	
합계:\$2,100						
주일미사 현금 : \$2,290			기타수입 : \$250			

성전헌금	김철민	민경근	박진수	신경훈	양영관	이현주
	이형삼	이호세	임한나	장영진	정혜영	조준제
	최태훈	황인종	한길선례			
합계 : \$ 880						
감사헌금(박이레네,익명) : \$200			주보광고 : \$ 720			

◆한국학교 SAT 시험 준비반 및 여름 특강 중입니다

- 기간 : 8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 시간 : 9:30 am~ 12:30 pm
- 문의: 한국학교장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제 16 차 한국어 교사 연수

- 기간 : 8월 11일부터 8월 15일까지
- 참가자 : 홍정은, 최은애, 이해정, 최이원 교사

◆제1회 차세대 세미나

- 일시 : 8월 15일(토)
- 참가자 : 김명선(졸업생), 신희령(졸업생), 김호재(12학년)
- * 이번 교사 연수와 차세대 세미나에 참가하는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남가주 소식

◆이나시오 성인의 영신 수련안내(9개월간)

- 일 시 : 2015년 9월 ~2016년 6월
- 주관처 : Loyola Institute for Sprituality
- 장소 : 로올라 영성센터
480 S Batavia St
Orange, CA 92868
- 문의 : 전 아네스 (213)507-1144

◆KCBC 미주 가톨릭 방송

8월 30일부터 iTunes podcast를 통해 1세, 1.5세, 그리고 2세의 젊은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KCBC 미주가톨릭방송을 download 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내용

- 차동엽 신부님의 주일강론
- 심동실 에밀리아의 아름다운 세상
- 김인실테레사의 투테이오늘은
- 영어 가톨릭뉴스
- 한국어권 / 영어권 청년 들을위한 교리 신앙, 문화교류 프로그램
- www.kcucus.podbean.com/feed/

◆제 4기 성 요셉천주교 아버지학교 개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 일시: 9월 13일 오후 2시(매 주일, 4주간)
- 장소 : 성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2040W.Artesia Bl , Torrance, CA 90504
- 참가비 : \$120
- 문의 ; 오재민 바오로 (562)505-8070
김태준 대건 안드레아 (213)249-4480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박영희 아가다 422-1119 유지아 클라라 793-6157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김정희 율리아 925-699-1253 8/7(금) 오후 6시성당 회의실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장수영 페트릭871-0787 8/8(토)오후6시30분 성당 강당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560-7120 8/14(금) 오후7시30분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심크리스티나 490-9662	박인식 토마스 490-9662 8/22(토)
	2	윤경옥 질비아 909-557-7490	정남형 알베르토 791-1374 8/8(토) 오후 6시
	3	박명순 안나 968-7600	김현숙 벨라멧다 8/10(화) 오전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오창애 안나 625-3312 8/21(금) 7시30분 소강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임미숙 로사 634-6923 8/18(화) 오전11시 성당
	3	김유미 사비나 738-5305	김유미 사비나 738-5305 8/8(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정병옥율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404-1607	황안젤라/임재마 938-8089 8/10((월) 오후 7시 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818-640-	1 /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윤희동 안토니오 749-3151 8/2(일)오후1시30분 De Portola Park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고전용&세실리아 310-531-0123 8/14 (금) 오후 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윤성진 안드레아 213-514-2365 8/14(금) 오후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68 8/11(화)오전10시30분Hesse Park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회의	오후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제단체모임	오후1시
-------	------

124위 시복특집<31> 고성대 베드로. (?~1816년)

‘여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고성대(高聖大) 베드로는 충청도 덕산의 별암(현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장리)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천주교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그는 본래 성격이 매우 포악하여 사람들이 가까이하기를 꺼렸지만,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한 뒤로는 그러한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베드로는 부모께 효성을 다하였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자, 그는 아우인 고성운(요셉)과 함께 8개월 동안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였다. 또 그들 형제는 언제나 합심하여 성서를 읽고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는 데 열심이였으므로 모든 신자들의 모범이 되었다.

이후 베드로는 고산 저구리(현 전북 완주군 운주면 적오리)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1801년의 신유박해 때 전주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내 전주로 끌려간 그는 처음에는 용감하게 신앙을 증거하였지만, 목숨을 보전하려는 유혹에 넘어가 석방되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온 고성대 베드로는 즉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이후로는 가끔 “이 큰 죄를 보속하려면 칼을 맞아야 마땅하다.”고 되뇌곤 하였다. 그러다가 아우와 함께 경상도의 청송 노래산(현 경북 청송군 안덕면 노래2동)으로 이주하여 그곳 신자들과 함께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서 신앙 생활을 하였다.

1815년 베드로와 요셉 형제는 교우들과 함께 부활 대축일을 지내다가 밀고자를 앞세운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경주로 압송되었다. 이때가 2월 22일경이었다. 경주로 압송되어 문초와 형벌을 받는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굳게 지켰다. 그러자 경주 관장은 그들 형제와 함께 배교를 거부하는 다른 교우들을 모두 감사가 주재하는 대구로 이송하였다. 대구에서는 또다시 문초와 형벌이 여러 차례 이어졌으며, 17개월이 넘게 괴로운 옥중 생활을 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한결같이 이러한 고통을 참아내면서 신앙을 증거하였다. 그런 다음 사형 판결을 받고, 1816년 12월 19일(음력 11월 1일)에 아우와 함께 대구 형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당시까지 그는 혼인을 하

지 않은 채 동정을 지키고 있었다. 이에 앞서 대구의 감사는 베드로 형제가 형벌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을 보고는 다음과 같이 조정에 보고하였다. “고성대 고성운 형제는 어리석고 무식한 무리로 천주교에 미혹되어 깨달을 줄 모르며, 엄한 형벌을 하면서 깨우쳐 주려고 하였지만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 번 죽기로 한 마음을 목석과 같이 고집하니, 그들의 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순교 후 베드로의 시신은 형장 인근에 매장되었다가 이듬해 3월 2일 친척과 교우들에 의해 그 유해가 거두어져 적당한 곳에 안장되었다.

◆서울대교구 홍보국 엮음

[길을 찾는 그대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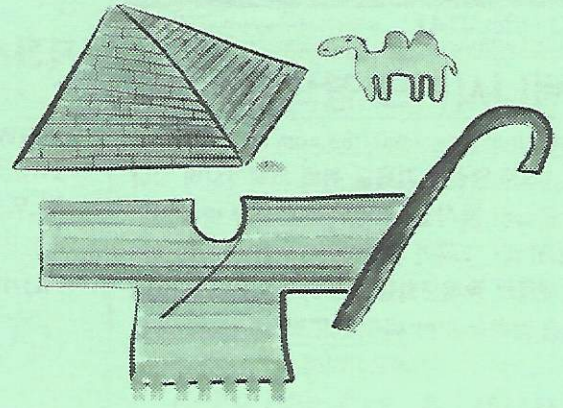
가끔 성경의 역사가 6,000년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후 신약 2,000년, 그리고 앞서 구약 4,000년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천지창조 이래 예수님 탄생까지 4,000년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요즘도 성경이 하느님 말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성경에 과학책과 같이 객관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고 믿으며 세상이 6,000년 전에 탄생했다고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호기심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나이를 더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대략 4,000년 전에 천지가 창조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 예리고만 보더라도 이미 만 여 년 전에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점만 보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의 역사가 4,000년이라는 것은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구약 성경은 객관적이고 과학적 진실을 전달하고자 하는 책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민족이 하느님과 걸어왔음을 증언하는 책으로 오랫동안 전해오던 이야기들을 신앙적으로 묶은 책입니다. 우리는 이 책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느님과 함께 걸어왔는지를 듣고, 그 하느님께서 바로 지금 나와 함께 걷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과거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주는 책이 아니라, 참된 진리, 곧 하느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알려주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과거 사건들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으려 해서도 안 되고, 성경의 증언이 과학적이 아니라고 비난 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증언을 읽으면서 과거의 하느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 영철호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요셉

성경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처럼 아름다운 인물도 드물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은 한편의 파란만장한 드라마와도 같아서, 그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창세 37장-50장)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란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결국에는 형제들이 작당해서 요셉은 노예로 팔리는 비운을 맞습니다. 형제들은 왜 요셉을 미워했을까요? 아버지 야곱의 유별난 편애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을까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분노하게 된 이유를 살펴볼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기 37,1-36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 간 곳은 파라오의 경호대장인 포티파르의 집이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요셉은 귀한 존재에서 낯선 이국 땅의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청년 요셉은 어려움 속에서도 부지런히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포티파르는 그런 요셉을 심복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신임했습니다. 그런데 포티파르의 아내는 그런 요셉에게 욕심을 품고 유혹을 합니다.

시련이 닥친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기 39,1-23

요셉은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시련을 이기고 드디어 성공을 이룹니다. 재상이 되어 백성들에게 좋은 정치를 펼칩니다. 그러다가 흉년이 들어 이집트로 곡식을 얻으러 내려온 자신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제들과 만나 화해를 하고, 서로 끌어안고 우는 과정은 성경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화해하고 조카들을 정성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은 셈입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기 41,53-45,15

아름다운 인물 요셉은 죽음을 아주 담담하게 맞으며 일가친척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요셉은 죽음 안에서 희망과 자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인 죽음 앞에서 요셉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믿음을 간직한 채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가나안 땅에 묻힐 것을 소원했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기 50,22-26

요셉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하느님의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와 은총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것이 불행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숨겨진 하느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형님들은 나에게 () 꾸렸지만, 하느님께서서는 그것을 ()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50,20)

누굴 탓 하라

들판 가득 흐드러졌을 때에는 야생화라 아름답다 하더니
보리밭에 개망초가 피니 꽃도 잡초가 되네.
꽃도 소용없고 이름도 잃은 채 잡초로 무참히 뽐허버리니
그게 어디 보리 탓이라, 망초 탓이라.
자리가 아니었던 게지.
그런데 꽃만 잡초가 되는 건 아니더군.
사람도 이름을 잃고 내쳐지는 건 잠깐이던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드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 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써니사이드 장의사

www.sunnysidecremation.com FDR #2224

이민 1세로 열심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며 살아 오신 분들은 품격있는 서비스로 예우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세와 다리역할을하며 영어와 한국어로 새로운 장례문화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린 "마이스토리"를 100부 무료로 제공합니다.

24시간 LA: 213-500-8434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Kim's Music & Art School

Piano, Violin, Clarinet, Saxophone, Cello, Flute, Guitar

창의력 발달 아동 미술, 포트폴리오 준비

*주말 ROBOTICS & LEGO수업

www.kimsmusicschool.com

☎310-387-5772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홀리 크로스 묘지분양

합장묘지, 크립트, 납골당

Jean Kim

☎ (213)842-8366

JKKim@LACatholicCemeteries.org



LASER DESIGN

Jewelry & Design

625 S. Hill St. Ste 244

Los Angeles, CA 90014

213-955-0038 김시문*마리암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이 난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쟈마-

한 국 장 의 사

LA(FD74), 놀워(FD1134)

(562)868-0788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케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천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이 난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이 난의 주인을
기다립니다.

광고문의 사무실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Max Cargo Inc.

International Air/Ocean Freight Forwarder

국제 항공/선박 운송/NVOCC

정충로 안토니오

(310)323-8100, Fax (310)323-8884

19825 Hamilton Av.

Torrance, CA 90502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불란서 안경 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CA 90006

(213) 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Heather Chong (정혜경) 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ECONO LUBE N' TUNE

이코노 종합 정비

타이어 알라인먼트 스모그 체크 브레이크

310-534-0150 김클라라

2514 SEPULVEDA & CRENSHAW



몬테소리 토요영재학교

U.S JMI KIDS COLLEGE

평생을 좌우하는 3세~7세 두뇌 발달 몬테소리 토요

영재학교에 맡기세요 전화 : 213-434-1314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